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20회, 3부

열왕기하 6-8장, 3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우리는 엘리사의 구원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끔찍하고 무서운 포위와 기근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이제 사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우연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4장에서 처음으로 수넴 여인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소개를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샘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고 그 물이 더 이상 독이 없게 만든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롱하는 젊은이 42명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다가 3장에서는 모압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다소 꺼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다가 4장 시작 부분에서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과부의 기름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다가 4장 중반부에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길로 올 때마다 자기 집 옥상에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아들은 분명히 일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완전히 믿음을 갖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년의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과부와 관련된 그 이야기는 이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는 사역입니다. 바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바알은 결코 끝없는 풍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바알은 결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3장부터 7장까지 엘리사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다시 살려낸 아들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 빙고를 봅니다.

무엇에 대한 거지? 네 가족과 함께 어디든지 가서 잠시 동안 지내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칠 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고 명령하셨느니라. 그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그와 그의 가족은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다.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킬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찾고 계셨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기근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있나요? 오하이오 계곡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 때 오하이오 강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재난이었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걸프만 연안에 허리케인이 끔찍한 재난이 되었나요? 인간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창세기 3장 이전의 세상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세상이었을까? 아니면 주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그 선한 여인에게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아직 기근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엘리사는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와. 우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면 나는 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때로는 그것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내 경험상 그가 말한 내용은 종종 격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격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 그게 정말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간증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강력하고 아주 잘못된 인상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 나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사실이었던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가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처럼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좋아, 뿌리 뽑고 가세요.

외국 땅, 블레셋 사람들로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갔다.

칠 년 만에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상소하러 갔더니 나봇과 그의 포도원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땅은 가족의 소유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땅의 사용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는 땅이 버려지면 왕의 소유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가족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왕이 게하시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아만의 대실패 이후 게하시는 이 끔찍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나아만 사건 이전의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로 여기에 배치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게하시가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경예언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교 예언에서 선지자는 미리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별 모양이라던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은 만약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우 포괄적인 진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게하시와 그의 가족이 나병환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는 내가 한센병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야.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6장 27절로 돌아가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붙을 것이라. 빙고. ifs도, ands도, buts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스가랴서도 비슷한 진술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기원전 520년의 일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서기 70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기 135년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번 더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당신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위해 삶을 산다면 예루살렘은 결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게하시야, 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나병환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게하시가 치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므낫세의 죄로 인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진술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52년 동안 통치한 왕.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 요시야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로잡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당신의 마음 속에 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정해져 있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게하시가 실제로 회개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는 믿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나에게 흥미 롭습니다. 왕은 8장에서 다시 듣고 싶어 합니다. 왕은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나에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개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는 기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신 야훼에 대해 말해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훼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사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어쩌면 내가 불친절하게 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는 마음이 어느 정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은 단지 흥미로운 것, 이상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렸는지 왕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여자의 아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집과 땅을 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러 왔습니다. 게하시가 이 사람이 바로 내 주 왕이신 그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다시 살린 그의 아들이니라.

내 계산으로는 네 번이다. 생명으로 회복되고, 생명으로 회복되고,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그들이 주장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수 있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하신 일을 그의 아들 이스라엘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바알신앙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점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의 일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고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가 나라를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돌려주라 하였더라. 음, 정말 관대하시군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당신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내 삶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과거의 것, 있어야 할 것,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되돌리고 싶습니까? 아, 그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많이 가능합니다. 자, 그것들은 엘리사와 엘리사가 행한 눈에 보이는 종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신앙의 역사에서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새 생명의 기적, 구속된 생명의 기적, 죄와 지옥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에게 매일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